

광양시-중국 렌윈강시, 농산물 145만 달러 MOU 체결

온라인 상담회로 매실 가공품·매화수 화장품·누룽지 등 큰 관심

광양시는 중국 렌윈강시와 농산물 수출입 온라인 상담회 개최로 광양 농특산물 가공제품 145만 달러(한화 17억 원)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가공업체들의 국내외 박람회와 판촉 행사 참가가 어려워져 그 대안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출입 상담회를 개최하여 해외 바이어 접촉 기회를 만들었다.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에 참여한 광양시 업체는 4개소(다임애울영농조합법인, ㈜메사코사, 농업회사법인

부저농원(주), ㈜가마솔푸드)로, 매실 원액, 매실장아찌, 매화수 화장품, 돌배발효액, 감식초, 누룽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16개 제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렌윈강시 2개 업체와 145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맺었다.

시는 렌윈강시와 협력하여 중국 장수성 85개 무역업체에 '광양시 우수농특산물 수출 품목 리스트'를 공유하고 중국 관심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온라인 무역 상담회를 시작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중국 업체가 모집될 때마다 비대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결한 수출협약이 실질적인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바이어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강금호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농특산물 판촉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우리시 우호도시인 중국 렌윈강시와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추진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 개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와 렌윈강시는 2011년 6월 국제 우호도시를 체결 이후, 2018년 7월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실질적 경제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광양시는 렌윈강시 현지에서 '광양-렌윈강 한·중 농산물 수출입 상담회'를 추진했으며, '2019 중국 장수 농업국제협력상담회'에 참가하는 등 관내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펼친 바 있다. /광양=조순의 기자

해남 전군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실시

해남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군은 예비비 1억1200만원을 투입해 백신을 자체적으로 조기 확보하고, 기존 무료 접종 대상 외 전체 군민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영유아 및 청소년,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다.

해남군의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9세 이상 62세 이하 성인 유료 대상자도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예방접종 백신은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4가 백신(바이리스크 중수)으로 접종하게 된다. 접종 기간은 현재 백신유통문제로 중단된 국가 무료 접종 일정에 맞춰 지난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임신부를 시작으로 10월13일부터 75세 이상, 10월20일부터는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국가 무료접종 대상이 아닌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상자는 오는 10월27일부터 관할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영광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영광군은 우리 고유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추석맞이를 시작했다

매년 실시해온 추석맞이 위문행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와 종사자, 입소자들의 불편함을 살펴보고 격려했지만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직접 방문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사회복지시설 25개소에 쇠고기와 생활용품, 특산물을 전달했다.

또한 각 읍·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보호가족과 다문화가정



등 전체 1,053명을 위문했다. 김준성 군수는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우리 군민 모두가 힘들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돌아보고 나눔과 배려를 가슴으로 느끼는 훈훈한 한가위가 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서중민 기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아동특별돌봄 지원금 합평 '추석 전' 지급한다

합평군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이번 추석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2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19억2100백만 원을 지급했다.

군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2차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 추석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1550개 가구다. 총 지원규모는 ▲주택전파(5가구) 8000만 원 ▲주택집수(130가구) 2억

6000만 원 ▲축·수산피해(22가구) 1억2000만 원 ▲산림피해(36가구) 4400만 원 ▲농작물피해(1천412가구) 14억1700만 원 등이다.

다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피해 종류별 지급이 아닌 합산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각 가구에 지급했다.

또한 농·임·수산물에 대한 피해 지원 단가도 인상됐다.

지난 1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결과에 따라 실거래가의 100% 수준까지 올랐다.

단가 인상분은 오는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 내 미취학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도 올 추석 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1억 6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미취학 아동 821명 전원에게 일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자로,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된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는 신속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각종 지원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와 가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평=최부길 기자

화순 '다목적 노면 청소 로봇' 시범 도입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목적 노면 청소 로봇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면 청소 로봇 시범 사업은 '다목적 노면 청소 로봇 실증 사업'의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재)광주테크노파크가 전담·주관하는 사업이다.

전남도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 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해 화순군이 선정됐다.

다목적 노면 청소 로봇은 1대당 3000만 원으로 통행량과 교통량이

많은 화순읍의 중앙로-진각로-광덕로 구간에 투입된다.

다목적 노면 청소 로봇은 대형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이면 도로, 인도, 전통시장 등에서 최신 흡기 시스템과 물 분사 시스템을 적용해 담배꽂이, 낙엽, 퇴적물 등을 청소할 수 있다.

청소 작업을 할 때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이 적어 보행자와 인근 주민은 물론 환경미화원에게도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화순=이종백 기자

담양 '내년 시책발굴 보고회' 개최

담양군은 지난 25일 민선7기 군정 각 분야의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2021 시책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한 핵심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행정 여건에 대해 선제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발굴이 주된 내용을 이뤘다. 특히 정부주도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

한 '담양식 그린뉴딜정책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등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정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앞서 담양군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명존중과 자연보호를 핵심가치로 하는 생태도시 정책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생태도시 정책의 생활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담양식 그린뉴딜정

책 중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발굴된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는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1년에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등 마무리에 접어들어 현안사업과 '고서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월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현안사업이 많은 만큼 추진 중인 사업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담양=조순채 기자

순천 농지이용실태조사

순천시는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0년 농지이용실태 일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불법전용,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에 대하여 9월부터 12월 까지 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 발급받아 매입한 농지 12,703건 20,811필지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하여 국비 9천 3백만원의 지원받아 별도의 조사인력을 채용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끝나면 불법 농지전용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농지에 대해 내년 초 청문 절차를 거쳐 1년간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통하여 경작할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경작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년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의 기자